

別思美人曲

金春澤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호오
말씀을 드려하니 설운 주 다 모를쇠
인년인들 혼가지며 니별인들 잣탈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의 님을 피서 즐기더니
니를 헛거니 직앙인들 업슬손가
히 가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엇더타 니 님이 건홀디 전혀 업니
광한전(廣寒殿) 어디미오 백옥경(白玉京) 내 아던가
원앙침(鴛鴦枕) 비취금(翡翠衾)의 피서본 적 보히 업니
내 얼굴 이 거동(舉動)이 무엇으로 님 길고
질습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니를가
엇언지 님 향흔 흔 조각이 므음을
하르리 심기시고 성현(聖賢)이 가르치서
덩학(鼎鑊)이 알피 잇고 부월(斧鉞)이 두히 이서
일백번 죽고 죽어 뼈가 길니된 후즈도
님향흔 이 므음이 변홀손가
나도 일을 가져 님의 없슨 것만 어더
부용화(芙蓉花) 오슬 짓고 목란(木蘭)으로 님 못사마
한를기 땡세하여 님섬기랴 원이러니
조물(造物)이 괴신이 귀신이 희즈온가
니 팔자(八字)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홀가

별사미인곡

김춘택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말씀을 들어보니 설운 줄 다 모를새,
인연(因緣)인들 한가지며 이별(離別)인들 같을 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에 임을 모셔 즐기더니
이별을 하였거니 재앙(災殃)인들 없을 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설워 마소.
어떻다 내 몸이 건줄 데 전혀 없네.
광한전(廣寒殿) 어디인가, 백옥경(白玉京) 내 알던가
원앙침(鴛鴦枕) 비취금(翡翠衾)에 모셔본 적 전혀 없네.
내 얼굴 이 거동(舉動) 무엇이 님 사랑할꼬.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를까.
어찌하여 임 향(向)한 한조각의 마음을
하늘이 심으시고 성현(聖賢)이 가르치서
정학(鼎鑊)이 앞에 있고 부월(斧鉞)이 뒤에 있어
일백 번(一百番) 죽고 죽어 뼈가 가루 될지라도
임 향한 이 마음이 어찌 변할 손가.
나도 일을 가져 님이 없는 것만 얻어
부용화(芙蓉花) 옷을 짓고 목란(木蘭)으로 꽃신 삼아
하늘에 땡세하여 임 섬기기 원하더니,
조물(造物)이 시기(猜忌)하나 귀신(鬼神)이 훼방하나
내 팔자(八字) 그러하니 사람을 원망(怨望)할까.

* 작자: 조선 후기의 문인. 숙종 때 폐비복위운동을 벌이는 등 당쟁에서 서인 노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였으며, 그 때문에 제주 등지에서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함. (1670 ~ 1717)

* 광한전: 달 속에 있다는, 항아(姮娥)가 사는 가상의 궁전

* 옥경: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는 가상의 서울

* 님 향한 한 조각의 마음: 일편단심(一片丹心)

* 정학: 죄인을 삶아 죽이는 가마.

* 부월: 도끼

* 부용화: 연꽃

* 목란: 목련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괴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늙이 어이 아도던고
 혼룩하 살ㅁ인가 이 몸이 되녀이서
 만수 천산의 가고가고 또 가있닉
 님 계신 데 싱각하니 꿈인들 어이 같고
 인간천손의 버리고 나라거니
 천축의 불쌍홀손 한시절 왕소군이
 옥계의 푸리 늑고 심궁의 밤이 길 제
 싱각고 못보는 줄 슬들이 한ㅎ다가
 만니 변성 의 무슴ㅎ라 가단 말고
 인연이 그러커든 니별이나 업거나
 니별이 이러커든 인연이나 잇듯던가
 산호 지게 백옥함의 님웃도 잇닉마는
 뉘러서 가져가며 가져간들 보실손가
 내 ㅎ인 뉘라 ㅎ고 무슨 말노 보닉올고
 스스로 면괴ㅎ니 늙이 엇디 니루려니
 누어도 싱각이오 안즈도 싱각이라
 아ㅁ도 이 싱각은 일각을 못이즐쇠
 치운 밤 더운 낮과 죽도반 조석 딘디
 님의 소식 듯즈ㅎ니 뉘라서 전홀손가
 꽃피거든 브라오면 님싱국 더욱 만히
 초(楚)닐 가는 허리 연(燕)나라 고은 얼굴
 긴 스미 말근 소리 어수선 뵈서이고
 광치야 도타ㅁ는 덩성이야 ㄷ이실ㄱ
 ㄷ빈혀 쏘즌 머리 님의 손디 향ㅎ였고
 뵈치마 밋온 몸이 님의 후 도화 잇니
 어려서 이러ㅎ가 미쳐서 이러ㅎ가
 ㅁ암이 절노 나니 위라서 금홀손고
 뵈서서 이리ㅎ기 각시님 갓도던들
 서름이 이리ㅎ며 싱각인들 이리ㅎ가
 츠싱(此生) 의 이러커든 후싱(後生)을 어이
 알고

내 몸이 지은 죄(罪)를 모르니 그 더 죄(罪)라.
 나도 모르거니 남이 어이 알 것인가.
 하늘이 만드셨나, 이 몸이 되어 있어
 만수천산(萬水天山)에 가고가고 또 가 있네.
 임 계신 데 생각하니 꿈인들 어이 같고.
 인간(人間) 천산(千山)을 버리고 날았거니
 천추(千秋)의 불쌍할손 한 시절(漢時節) 왕소군이
 옥계(玉階)에 풀이 나고 심궁(深宮)의 밤이 길 제,
 생각하고 못보는 줄 살뜰이 한(恨)하다가
 만리변성(萬里邊城)에 무엇 하러 간단 말고.
 인연(因緣)이 그렇거든 이별(離別)이나 없거나
 이별(離別)이 이렇거든 인연(因緣)이나 있던가.
 산호(珊瑚)지게 백옥함(白玉函)에 임 웃도 있지마는
 뉘라서 가져가며 가져간들 보실 손가.
 내 하인(下人) 뉘라 하고 무슨 말로 보내올고.
 스스로 면괴(面愧)하니 남이 어찌 이르러니
 누어도 생각이요, 앓아도 생각이라.
 아마도 이 생각은 일각(一刻)을 못 잊으리.
 추운 밤 더운 낮과 죽조반(粥朝飯) 조석(朝夕) 진지
 임의 소식(消息) 듣자하니 뉘라서 전(傳)할 손가.
 꽃 피거든 바라오면 님 생각 더욱 많아
 초(楚)나라 가는 허리 연(燕)나라 고운 얼굴
 긴 소매 맑은 소리 어수선히 되었구나.
 광채(光彩)야 좋다마는 정성이야 닿으실까.
 대 비녀 꽃은 머리 입에게 향하였고
 베 치마 맨 몸이 입에 뒤에 좋아 있어
 어려서 이러한가, 미쳐서 이러한가.
 마음이 절로 나니 뉘라서 금(禁)할 손고.
 뵈서서 이리 하기 각시님 갓던들,
 설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리할까.
 차생(此生)이 이렇거든 후생(後生)을 어이 알꼬.

* 만수천산: 깊은 산과 물

* 왕소군(王昭君): 중국 전한 원제(元帝)의 후궁. 기원 전 33년 흉노와의 화친 정책으로 흉노의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와 정략결혼을 하였으나 자살함.

* 초나라 가는 허리: 초나라 영왕은 허리가 가는 관리를 선호하여 모든 관리들은 얼굴이 누렇게 뵈었다고 함.

츠하리 식여저 구름이느 되어이서
 상광오색이 넘계신디 덥혔고저
 그도 므소 흐면 브람이느 되어이서
 하일청음의 넘 계신 디 부러고저
 그도 므소 흐면 일륜명월 되어 니서
 영영 반야의 두려시 비최고저
 그도 므소 흐면 명산대천 되어 니서
 용비봉무하여 님의 집의 둘러있고
 디하를 괴와 노코 님의 몸을 받들고저
 그도 므소 흐면 정지초 되어 니서
 기린봉황으로 님의 성세 되어니서
 그도 므소 흐면 금옥명주 되어니서
 청묘호령으로 님의 보배 되었고저
 그도 므소 흐면 오현금 되어이서
 남훈전 님의 슬상의 노혔고저
 그도 므소 흐면 화류마 되어니서
 옥안금천으로 님을 틉화 달리고저
 그도 므소 흐면 식즘싱 되어니서
 틉박디 상님원의 노일며 즐기고저
 그도 므소 흐면 썩글이나 되어니서
 님드니는 길우히 느붓기며 다니고저
 아와 이 각시님 그려도 그려흔다
 팔즈를 어이하며 천륜인들 도망홀가
 더 흐거니 덜흐거니 분별하여 무어 스흐며
 구람이느 브람이느 되어늘들 무엇홀고
 각시님 잔 가득 부으시고 혼시름 이즈소

차라리 시어지어 구름이나 되어 있어
 상광 오색(祥光五色)이 임 계신 데 덮고자.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 있어
 하일청음(夏日淸陰)으로 임 계신 데 불고자.
 그도 마소 하면 일륜명월(一輪明月) 되어 있어
 영영(映映) 반야(半夜)에 뚜렷이 비추고자.
 그도 마소 하면 명산대천(名山大川) 되어서
 용비봉무(龍飛鳳舞)하여 임의 집에 둘러 있고
 대하(大廈)를 지어 놓고 임의 몸을 받들고자.
 그도 마소 하면 정지초(淨地草) 되어 있어
 기린봉황(麒麟鳳凰)으로 임의 상서(祥瑞) 되어 있어
 그도 마소 하면 금옥명주(金玉明珠) 되어 있어
 청묘호령(靑妙護靈)으로 임의 보배(寶見) 되고자.
 그도 마소 하면 오현금(五絃琴) 되어 있어
 남훈전(南薰殿) 임의 슬상(膝上)에 놓이고자.
 그도 마소 하면 자류마(紫驪馬) 되어 있어
 옥안금천(玉鞍錦薦)으로 임을 태워 달리고자.
 그도 마소 하면 새 짐승 되어 있어
 태백지(太白地) 상림원(上林苑)에 노닐며 즐기고자.
 그도 마소 하면 티끌이나 되어 있어
 임 다니는 길 위에 나부끼며 다니고자.
 어와 이 각시님 그리워서 그려 한가.
 팔자(八字)를 어이하며 천륜(天倫)인들 도망(逃亡)할까.
 더 하거니 덜 하거니 분별(分別)하여 무엇하며
 구름이나 바람이나 되어 난들 무엇할까.
 각시님 잔(盞) 가득 부으시고 한 시름 잊으소서.

- * 상광: 상스러운 빛. 서광(瑞光)
- * 그도 마소: 그것도 (하지) 마시오.
- * 하일청음: 여름날의 시원한 나무그늘
- * 대하: 매우 큰 집
- * 청묘: 청아하고 기묘함.
- * 남훈전 : 당나라 때에 있었던 대궐 이름으로 순(舜) 임금의 지은 시 ‘남풍지훈(南風之薰)’에서 따온 명칭. 순 임금 때 남풍이 불어, 앓던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데에서 유래.
- * 자류마: 대추같이 붉은 색의 명마
- * 옥안금천: 옥으로 만든 안장과 비단을 만든 깔개
- * 상림원: 중국 장안에 있었던 대궐 안의 동산. 진시황이 창설하고, 한 무제가 증축함. 진기한 동물이나 여러 가지 초화를 모았다고 함.